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ICT기술활용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 기념촬영.

# “이제는 축산도 스마트하게”

### 전북대서 ICT기술 활용 토론회... 연구 방향 모색 축산 개체 변화 데이터 패턴화 디바이스 개발 강조

축산 분야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팜 발전을 위해 29일 전북대에 모여 ICT기술 활용 공동연구 토론회를 가졌다. 미래축산포럼이 주관하고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대,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축산산업진흥협회, (주)에그리보텍, (주)다운 등 산학연 연구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실정에 알맞은 스마트팜 ICT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공유와, 이를 현장에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최희철 농진청 연구관은 산업동물의 스마트팜 적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축산 ICT 선도

기업인 (주)에그리보텍의 함영화 대표는 스마트팜에 필요한 기기의 개발 및 보급현황과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종합토론회에서는 사료자동급이기, 발정알리미 등 축산업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ICT 기술 현황과 향후 기술 개발 연구의 방향을 모색했다. 축산업의 경우 움직이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개체의 번식 행동 및 생리적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패턴화하고, 패턴화한 증세를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이 학교 단장은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팜에 활용할 ICT 신기술 개발에 대해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향후 사업단 연구성과를 활용한 ICT 기술 및 장치는 발생주기 뿐만 아니라 질병 및 이상 징후도 관별이 가능하여 농장 경영의 효율을 높이고 질병의 감염과 전파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한중관계의 가교 역할에 기여할 것”

### 원광대 사학과 졸업 조대호씨, 중국정부장학생 선발

원광대학교 사학과 졸업생 조대호(26)씨가 '2018년 중국정부장학생' 석사과정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조씨는 9월부터 3년 동안 중국 인민대학 역사학과 중국 근현대사 중국 공산당사 전공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로부터 학비와 숙식 및 종합의료보험 등 매월 3,000위안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중국 교육부 직속 교육기관인 인민대학은 중국 정부의 세계 인류학에 대한 관심과 인재를 위한 야심찬 교육 개혁 선두주자로 불리는 명문대학으로서 특히 신문방송, 재정금융, 중공당사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중국 최고 요람

으로 알려져 있다. 재학시절 조씨를 지도한 유지원(역사문화학부) 교수는 “지난해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조기 졸업한 조대호 학생은 이사장상을 받고, 평균 평점 4.46점으로 우수한 학업능력을 인정받았다”며, “특히 재학 중 중국과 관련된 대내·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다양한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한편, 매주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 봉사 등을 통해 지역과 사회를 위해 힘써온 조대호 씨는 최근 조월 모세포 기증을 위해 중국에서 귀국해 지난 7월 이식수술을 하는 등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보이기도 했다. 조씨는 “대학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과 중국에서 보낸 유학경험을 살려 앞으로 한중관계의 가교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무한 중국공산당 전문가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 ‘전북교육백서’ 발간... 주요시책 한눈에

### 주요사업 성과 · 향후과제 정리

전북교육백서가 발간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간 전북교육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를 정리한 ‘전북교육백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백서 발간은 전북교육 4년간의 성과를 종합 분석·정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다. 백서는 ▲사건으로 보는 전북교육 ▲제1장 전북교육의 기저 ▲제2장 전북교육 현황 ▲제3장 전북교육의 성과와 전망 ▲소속기관 운영 ▲부록 등 총 745쪽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3장 전북교육의 성과와 전망에서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 등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성과, 향후 과제 등을 담고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발간사에서 “전북

교육은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시간 꾸준히 힘써온 결과 전북교육의 역사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모델로 우뚝서게 됐다”면서 “전북교육은 앞으로도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뚝뚝뚝 제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백서는 일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내 행정기관, 의회, 사법기관, 도서관과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배부된다. /김재훈 기자



## 2021학년도 대입전형 명칭 통일 의무화

### 대교협, 기본사항 발표 재외국민·외국인 해외재학 체류·재직기간 통일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응시할 2021학년도 대입에서 각 대학은 대학별로 다양한 대입 전형 명칭을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통일해 표기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통일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전형명칭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유형을 의무적으로 통일해 표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0인제전형’, ‘△△전형’ 등으로 중구난방으로 불리던 것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기전형이면 실기전형으로 통일해 표기해야 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된 의 2% 이

내에서 선발하고 있는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통일하도록 했다. 각 대학들은 2021학년도 대입부터 지원자격 조건 중 학생의 해외재학 기간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2020학년도 대입까지는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지원자격 중 해외체류 기간의 경우 학생은 이수 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는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했다. 2020학년도 대입까지는 대학이 해외 체류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해온 해외 근무자의 재직 기간은 통산 3년(1095일)이상으로 바뀐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9월7일부터 11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26일부터 31일까지로 각 대학은 해당 기간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원서를 접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와 대입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 우수기업 채용 기회 확대 기대”

### 상업경진대회 역량강화 캠프

전북도교육청은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제8회 전국상업경진대회를 앞두고 도내 10개고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과 지도교사 8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캠프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제8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굿잡(Good Job) 고(Go) 미래여는 상업교육’을 주제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상업계열 168개 고등학교에서 1,400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충남 천안상업고등학교와 천안여자상업고등

학교 등에서 개최된다. 이를 앞두고 전북교육청은 8월 30~31일 한국농업연구원(장수군 장수읍)에서 회계실무, 창업실무, 비즈니스영어, 전자상거래 실무, ERP, 금융실무, 취업설계 포트폴리오, 경제골든벨 등 10개 종목 참가학생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8회 전국상업경진대회부터 KB국민은행 등 우수 기업의 현장면접과 채용과정이 포함됨에 따라 도내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기업의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